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 확보가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Natural Surveillance of Detached House on the Fear of Crime

신재현*, 김상운**
동국대학교*, 경찰교육원**

Jae-Hun Shin(enfant21@naver.com)*, Sang-Woon Kim(ksw48@naver.com)**

요약

1950년대 이후 범죄에 대한 기존의 예방법에 대한 한계로 인해 기존의 범죄예방과 다른 관점을 가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활동(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CPTED는 범죄자의 범죄 특성과 인간의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CPTED의 요소 일반적으로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지원 등이 있다. 이 중 자연적 감시는 CPTED 기법의 요소로서 자연적인 감시활동이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여 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CPTED 연구와 달리 이 연구에서는 단독주택지역이라는 CPTED 특성을 바탕으로 확보된 자연적 감시에 의해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어 범죄 두려움 감소와 함께 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실질적인 범죄가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중심어 :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 자연적 감시 | 범죄에 대한 두려움 | 범죄피해 경험 | 단독주택 |

Abstract

Since the 1950s, crime prevention was to figure out how dissident. Unlike traditional crime prevention was a point of view. Physical environment and a method to prevent crime,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the prevention of crime, property crime, criminals and human right with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se CPTED has a variety of factors.

Natural surveillance of these is the most basic elements. Natural surveillance is monitored by monitoring the behavior of criminals, to prevent crime.

CPTED was the larg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focused on a study area. However, this study examined the area around a house.

Made to secure the hypothesis of natural surveillance to affect fear of crime. Research on fear of crime and crime victimization declined. Thus, the securing of natural surveillance proved to be effective in crime prevention in this study.

■ keyword :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 Natural Surveillance | Fear of Crime | Experience of Crime | Detached House |

1. 서론

급변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수준은 점점 잔인해지고 지능화되는 등 과거와 달리 심각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들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범죄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일상활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노상강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의 야간 활동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퇴근시간이 빨라질 것이고, 야간에 음주를 하는 인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민 간의 교류가 줄어들 것이다. 그로 인해, 지역의 야간 활동을 통한 소비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지역 경기가 나빠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력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범죄예방전략 한계에 도달하여, 현대의 과학적인 시설과 장비 및 분석이 혼용된 새로운 범죄예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범죄예방전략 중에서도 기존의 범죄자의 활동 및 심리상태·범죄원인 해결을 통한 범죄유발 요인 제거·억제를 실시하는 범죄예방 전략에서 벗어나 지역 환경의 특성을 활용한 범죄예방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역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리적 주변 환경의 설계 혹은 재설계를 통해 범죄기회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에서는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통제, 영역성, 활동의 지원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자연적 감시는 거주자나 이웃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 쉽게 관찰되는 것으로 Jane Jacobs의 거리의 눈(eye of street) 또는 길 위의 눈(eye on the street)의 개념에서 보면 지켜보는 시선이 많을수록 범죄자가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를 말한다.

따라서 자연적 감시의 확보는 범죄에 대한 예방과 동시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과 같은 형태의 주거영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형태인 단독주택에 대한 연구는 전문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연적 감시 확보가 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연구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하여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 작성을 통한 실증적 분석으로 실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정의

CPTED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이하 ‘CPTED’, ‘셉테드’로 칭한다)의 두문자어(acronym)로서, “건축 환경의 적정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이 범죄 발생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으로서, 그 기본적인 원리는 환경을 범죄에 불리한 상황으로 설계함으로써 범죄의 비용을 높여 범죄 기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을 하는 것이다[1].

일반적으로 이러한 CPTED는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을 더 어렵게 만들어 선량한 시민들이 자기들의 환경 속에서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화한 방법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이러한 CPTED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학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CPTED를 종합적으로 정의하면, 특정지역의 방어 공간적 특성을 강화하여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발견의 위험성을 증가시키

고, 범행의 성공가능성을 현저히 낮게 인식시켜 범죄를 억제시키기 위해, 하회의 물리적·사회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여 장차 발생이 예견되는 범죄의 기회를 차단하는 치안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3].

다시 말해,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범죄예방활동에서 벗어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전략으로서, 집·담·안전지역 등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범죄자로 하여금 범죄의 기회를 줄이거나 어렵게 하는 범죄예방 전략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구성요소

CPTED는 범죄를 물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예방하는 방법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CPTED요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사권을 최대화시켜 자연적으로 잠재적 범죄를 감시할 수 있는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허가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의 기준을 확립하여 잠재적인 침범자들에게 침범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영역성(Territoriality),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만들어진 외관 및 이용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취약한 지역 및 장소에 대해서 물리적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CPTED요소에 대해 학자별로 구성요소를 달리하고 있다. [표 1]에서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CPTED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각 학자별로 요소를 구성하는 설명에 대해 살펴보면,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과 같은 기본원리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각 학자별로 부가원리로 설명하고 있는 활동 지원, 이미지, 활동 지원, 목표물 강화 등에 의해서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학자별 CPTED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학자	CPTED 구성요소
Newman (1972)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 환경(Milieu), 이미지(Image)
Jeffery(1977)	영역성(Territoriality),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이미지와 입지환경(Image & Milieu)
Moffat(1983)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활동성 증대(Activity Support), 유지 및 관리(Maintenance and management), 이미지(Image)
Jeffery & Zahm(1993)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강화(Reinforce),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Crowe(2000)	접근통제(Access Control),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김영제(2007)	접근통제(Access Control),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임준태(2009)	접근통제(Access Control),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 영역성 강화(Reinforce Territoriality),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
박현호(2010)	영역성(territoriality),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이미지 및 관리(image & maintenance), 활동적 프로그램 지원(activity program support)과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3. 자연적 감시

이 연구에서는 CPTED의 다양한 요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자연적 감시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연적 감시(Natural Surveillance)는 주민과 기관에게 비공식적 또는 자연적 감시기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보호수단으로서 구성요소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4].

일상활동이론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감시자의 부재(Absence of Capable Guardian)를 해결해준과 동시에 동기화된 잠재적 범죄자(Motivated Offender)에게 경고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CPTED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연적 감시 활동은 순찰강화, 전자감시 장치의 설치 담당 및 시야 장애물 제거, 가로 조명 개선, 지역 주민의 조직화 등을 통해 침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다. 감시활동에는 잠재적 범죄자들이 지역 주민들에 의해 관찰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5].

특히, 낮에 가시성 확보를 위해 취약고간에 대해 시설 및 공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고, 야간의 시야를 위해 건물 출입구, 보행로와 도로, 주차시설, 가로시설 등에 대한 적절한 조명의 설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다[6].

따라서 CPTED를 이용한 범죄예방활동에 있어서 범죄예방효과가 가장 큰 요소인 자연적 감시의 확보가 실제 거주민들의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III. 연구설계 및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가설의 설정

자연적 감시의 확보는 범죄를 줄이는 전략으로서 기존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실시된 CPTED 전략을 활용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에서 벗어나, 자연적 감시가 확보된 단독주택으로 한정하여 거주자를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자연적 감시가 확보되면 될수록 범죄두려움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1,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범죄피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가설의 검증을 위해 관련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자연적 감시를 확보한 집단에서 범죄두려움에 대해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자연적 감시, 무질서, 주민 간의 유대를 설정하였다.

자연적 감시란 주민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 모두의 일상생활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해 외부에서의 시야, 조경과 조명에 초점을 두고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중속변수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적 감시 확보 후의 범죄피해경험을 설정하였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조사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이 연구의 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표 2.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빈도	비율(%)
성별	남자	45	45
	여자	55	55
	전체	100	100.0
연령	10대	9	9
	20대	12	12
	30대	6	6
	40대	24	24
	50대	24	24
	60대 이상	25	25
	합계	100	10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17	17
	중학교 졸업	11	11
	고등학교 졸업	39	39
	전문대 졸업	13	13
	4년제 대학교 졸업	20	20
합계	100	100.0	
직업	주부	41	41
	회사원	11	11
	전문직	7	7
	공무원	4	4
	자영업	18	18
	학생	14	14
기타	5	5	
합계	100	100.0	
거주기간	0~1년 미만	6	6
	1~5년 미만	6	6
	5~10년 미만	40	40
	10~15년 미만	9	9
	15년 이상	39	39
	합계	100	100.0

거주 인원	1인	4	4
	2인	14	14
	3인	18	18
	4인	46	46
	5인 이상	18	18
	합계	100	100.0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죄두려움의 차이 분석

먼저 성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보겠다. 성별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에 대한 평균비교(T-test) 결과는 다음 [표 3]에 나타나 있다.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에 따른 집단의 차이는 t 값이 -3.116으로 성별에 따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2.5545점으로 남자의 2.2000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여 남자보다 여자가 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죄두려움 차이 분석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범죄 두려움	남자	2.2000	.44467	-3.116	.002**
	여자	2.5545	.64852		

* p < .05, ** p < .01

다른 일반적 특성에 따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연령, 학력, 직업, 거주인원 중 연령에 따른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40대의 점수가 2.7917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 다음이 20대로 2.7083의 점수를 보이고 있다. 이 점수들은 다른 나이들에 비해 20대와 40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가장 민감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대한 범죄두려움 차이분석

변수	집단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 확률
연령	10대	2.0556	.41037	5.721	.000**
	20대	2.7083	.99905		
	30대	2.3333	.34157		
	40대	2.7917	.47587		
	50대	2.1600	.52085		
	60대 이상	2.2500	.29651		

학력	초등학교 졸업	2.0735	.29000	2.416	.054
	중학교 졸업	2.2500	.55902		
	고등학교 졸업	2.4551	.64091		
	전문대 졸업	2.4038	.46254		
	4년제 대학교 졸업	2.6250	.67619		
	합계	2.4146	.60624		
직업	주부	2.4146	.60624	1.163	.152
	회사원	2.6591	1.09789		
	전문직	2.3571	.00000		
	공무원	2.7500	.22361		
	자영업	2.4444	.47400		
	학생	2.0327	.42582		
	기타	2.2500	.17678		
거주 인원	1인	2.3750	.25000	1.089	.367
	2인	2.3393	.47644		
	3인	2.2222	.54157		
	4인	2.5217	.66002		
	5인 이상	2.2917	.55737		

* p < .05, ** p < .01

다른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평균점수들을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경향이 나타난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평균 점수가 2.625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 졸업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이 점수가 가장 낮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회사원, 공무원이 점수가 높고 주부나 학생, 전문직들의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주로 조직사회에서 생활하는 참여자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자연적 감시 확보를 통한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경험의 관계

3.1 자연적 감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가설 1.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5. 자연적 감시와 범죄두려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244	.351		9.232	.000
자연적 감시	-.261	.106	-.240	-2.449	.016*
R ² = .058		F = 5.998			

* p < .05, ** p < .01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자연적 감시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

준 0.05에서 자연적 감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은 -2.449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5.998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R²=0.058로 5.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정된 회귀계수B가 -.261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적 감시가 높으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자연적 감시와 범죄피해경험(시행 후)의 관계

가설 2.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범죄피해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6. 자연적 감시와 범죄피해(시행 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939	.129		14.983	.000
자연적 감시	-.325	.057	-.498	-5.689	.000**
R ² =.248		F=32.364			

* p < .05, ** p < .01

범죄피해경험(시행 후)에 자연적 감시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자연적 감시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은 -5.689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32.364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R²=0.248로 24.8%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정된 회귀계수B가 -.325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연적 감시가 높으면 범죄피해경험(시행 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무질서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t값은 1.77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질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1.982	.239		8.275	.000
무질서	.181	.102	.177	1.779	.078
R ² =.031		F=3.165			

* p < .05, ** p < .01

표 8. 주민간의 유대와 범죄두려움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3.416	.361		9.468	.000
자연적 감시	-.320	.112	-.274	-2.865	.005**
R ² =.077		F=8.209			

* p < .05, ** p < .01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주민 간의 유대가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주민유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값은 -3.560로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은 12.677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R²=0.061로 6.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추정된 회귀계수 B가 -.300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간의 유대가 높으면 범죄피해경험(시행 후)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분석결과의 논의

이 연구의 실증적 연구 결과 단독주택 내의 자연적 감시 확보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한 사람이 집에 접근하는 것을 주변의 이웃이나 보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면 또는 자신이 밖에 나와 있을 때 이웃이나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안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절한 조경으로 시야를 해치지 않고 적당한 가로 등의 개수와 충분한 밝기를 가져 야간에도 외부에서 쉽게 관찰이 가능하다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질 것이다. 또한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범죄피해경험에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경험은 범죄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가 일어나기 어렵다면 경험 또한 줄어들 것이다. 범행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다면 접근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체포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범행대상으로서의 매력 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근접성, 보상의 크기, 대상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등을 합리적 선택의 기준으로 들고 있다. 잠재적인 목표물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모험을 감수하여 얻어지는 수익이 너무 빈약하다고 인식을 하면 범죄행위를 단념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위험성의 증가, 더 많은 노력의 투자, 보상의 감소, 죄책감이나 수치심 유발이라는 상황적 범죄예방의 4가지 요소들 중에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위험성의 증가와 더 많은 노력의 투자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자연적 감시의 증가는 대상에 대해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조건을 만든다.

주민 간의 유대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사이가 좋으면 서로에게 관심이 더 있을 것이고 다른 이웃의 일을 더 살필 것이다. 이웃집의 사람이 외출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해서 집이 비워져 있을 때 이웃사람들은 낯선 사람의 접근에 대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도 더 쉽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질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범죄에 더 민감하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은 범죄에 대한 취약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취약성 가설은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에 대한 지각에 더 민감할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7].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20대와 40대가 가장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하게 나타났다. 20대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연령대이다. 활동반경이 크고 활동빈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잦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40대는 어느 정도 인생에서 이뤄놓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범죄에 피해를 입을 시에 잃게 되는 것이 많다. 그러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수밖에 없다.

취약성 가설에 따르면 노인은 신체적으로 긴장한 젊은 사람들보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더욱 민감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실제로 노인들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민감하지 않았다. 20대와 40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균점수를 보여준다. 50대나 60대는 대부분 인생에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한 연령대이고 자녀 또한 성장하여 분가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삶에 대한 애착도가 낮을 것이며 범죄에 대해서는 둔감해져 있다.

V. 결론

이 연구에서 살펴본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 확보가 거주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는데 있다.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 확보를 통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게 한다. 그리고 높은 자연적 감시는 주민들이 경험하는 범죄피해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쳐 범죄피해경험이 낮게 된다. 또한 주민간의 유대가 높아지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다.

자연적 감시의 확보와 주민 간의 유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의 자연적 감시영역의 증가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피해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방안으로 첫 번째,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운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담장 허물기 운동”의 주요목적은 도시공간의 활용, 녹지조성, 주차공간의 확보이지만, “담장 허물기 운동”을 통해 확보된 자연적 감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범죄피해경험의 감소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담장 허물기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자연적 감시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범죄

예방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자연적 감시를 확보시키는 방안으로 CCTV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CCTV는 자연적 감시를 통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범죄발생 이후 증거 수집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주 지역 내의 CCTV 설치를 증가시켜야 하며, 푸른색 가로 등의 설치 등과 같이 자연적 감시를 증가시켜 주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 번째,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는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특히, 자연적 감시의 확보는 이웃 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주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가 자연적 감시를 강화해줄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자연적 감시 이외에도 주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연적 감시를 활용한 범죄예방 대책을 바탕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켜 시민들이 느끼는 편안한 안전을 도모하는데 자연적 감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공동주택 위주의 CPTED 연구에서 벗어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이 기존의 연구와 차이를 두고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데 있어서 자연적 감시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자연적 감시 확보지역의 표본수의 문제, 특정지역에 집중된 자연적 감시가 확보된 단독주택지역으로 인해 보다 명확한 실증연구가 어려웠다는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참 고 문 헌

[1] 최진혁, 박준석, “CPTED 전략이 산업보안의 효과성 향상에 미치는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8, pp.283-320, 2010.
 [2] 박현호, 김영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범

죄환경설계의 전략과 향후과제”, 한국경호경비학회지, Vol.17, pp.173-193, 2008.

[3] 박동균, “대학캠퍼스의 안전을 위한 CPTED 운용 전략”,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4, pp.340-347, 2010.
 [4] 박기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2, pp.133-154, 2009.
 [5]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
 [6] 이도선, *CPTED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7] 차훈진,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경험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저 자 소 개

신 재 현(Jae-Hun Shin)

정회원



- 2006년 2월 :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 학사)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 석사)
- 2009년 2월 ~ 현재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수료(범죄학)

<관심분야> : 범죄학, 경찰학, CPTED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행정학사)
- 2008년 8월 : 계명대학교 정책학과(행정석사)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현재 : 경찰교육원 교무계장(경정)

<관심분야> : 경찰교육, 경찰인사, 조직관리